

# 고유가, 새로운 사업의 기회이다

태양이 높아지면서 무더위가 턱까지 타올라 숨이 턱턱 막힌다. 이전에는 여름이 되었으니 더우려니 하겠지만 고유가 시대에는 걱정이 앞선다. 5월부터 시작된 무더위가 6월에는 예전의 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렇게 더워진 것이 화석연료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이것이 하늘을 뒤덮으면서 온실효과를 일으켜 발생하는 환경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들도 안다.

태양을 보면서 올 여름 에어컨은 또 얼마나 틀어야하고 그 비용은 무슨 수로 감당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 강력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고유가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소형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운행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석탄에서 직접 석유를 뽑아내는 일에 착수를 했고, 에너지를 뽑을 수만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든다.

국가도 기업도 국민들도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1차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에너지저소비형구조로의 강도 높은 변화를 꾀해 이제는 상당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가 국가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에너지다소비형구조를 갖고 있어 고유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말로만이 아닌 정신 차리고 강력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을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유가 시대에 경제가 어렵다고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묻는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냐고. 답변은 환경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위기는 곧 기회가 아닌가?

최근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에서 제1회 환경에너지포럼을 개최하였는데 300여명에 이르는 청중이 참여했다. 고유가 시대에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며 청정한 에너지가 없을까하는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재성  
에코뉴스 발행인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환경부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폐기물 에너지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면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거나 유기성폐기물을 가스화해서 연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 중 폐기물 에너지화 생산단가는 태양광의 10%, 풍력의 66%로 경쟁력이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겠다”,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밀겠다고 하는데 기업이 이 기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고유가라는 새로운 환경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일에 환경기술인들이 앞장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K)